

국제신문

Kookje Shinmun

2007년 4월 16일 (음력 2월29일) 월요일 22판

한일해저터널 다시 '수면 위로'

부산시 첫 타당성 검토 착수후 쟁점 부상
 日, 사업 성사 대비 탐사터널 400m 뚫어

“사업 성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최종 위명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달 중순 한일 해저터널 일본 측 시발점인 규슈 사가현 가라쓰의 터널 시굴현장을 둘러보고 온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본격 공사를 위한 캠프가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이곳엔 현재 탐사용 터널이 해저 400m까지 뚫려 있다. 그는 “해저터널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내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단체 견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6면>

이처럼 일본 측이 집요하게 한일 해저터널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저터널 건설 구상이 최근 부산 지역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시가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시민단체들은 반대운동에 나설 태세여서 찬반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부산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워크숍을 부산발전연구원, 시 교통국, 교통관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일 해저터널이 부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첫 작업이다. 부산발전연구원 측은 내달 중순께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일본에만 좋은 일 시키며, 경제성도 허구”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아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은 다음달 중 ‘한일 해저터널 득과 실’이란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정치권에 서도 해저터널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경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부 운하’나 박근혜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공약에 맞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양형일(무소속) 의원 주최로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여론 조성용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변영삼 정순백 기자

sbiung@kookje.co.kr

国際新聞 2007年4月16日(22版)

日韓海底トンネル再び「水面上に」

釜山市 初の妥当性検討に着手後、争点浮上

日本 事業成功に備え探査トンネル400m掘削

「事業の成功に備え万全の準備を終え、最終的なウォーミングアップをしているという感じを受けた。」先月中旬、日韓海底トンネルの日本側の始発点である九州の佐賀県唐津のトンネル試掘現場を見学した釜山地域の市民団体のある人は「本格的な工事のための基地が完璧に準備されていた」と15日、明らかにした。そこには現在、探査用トンネルが海底400mまで掘られている。彼は「海底トンネルに対する雰囲気づくりのために韓国内の世論主導層を対象にした団体見学が持続的に行われていると聞いている」とつけたした。

このように日本側が執拗に日韓海底トンネルに力を入れているなか、これまで水面下に沈んでいた海底トンネル建設構想が最近、釜山地域の争点に浮かび上がっている。釜山市が海底トンネル建設の妥当性検討に着手したのに続き、市民団体らは反対運動にでる姿勢で、賛否論争が本格化する兆しがある。

釜山市は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関連のワークショップを釜山発展研究院、市交通局、交通関連の教授などが参加する中、去る3日に開催した。今回のワークショップは日韓海底トンネルが釜山に与える影響を総合的に検討した初の作業である。釜山発展研究院は来月中旬に日韓国際セミナーの開催も準備中である。

しかし、海底トンネルを建設すれば「日本だけに利点があり、経済性も虚構」という反対世論が少なくなく、地域社会の熱い論点に浮上している。釜山経済再生市民連帯などは来月中に「日韓海底トンネルの損得」という主題で市民討論会を準備中である。政界でも海底トンネルが大統領選挙の公約に採択される場合、イ・ミョンバク前ソウル市長の「京釜運河」や、パク・クネ前代表の「列車フェリー」公約に対立する争点となる可能性が高いとみている。最近ではヤン・ヒョンイル(無所属)議員の主催で海底トンネル早期推進のための世論づくり用のセミナーが国会で開催された。